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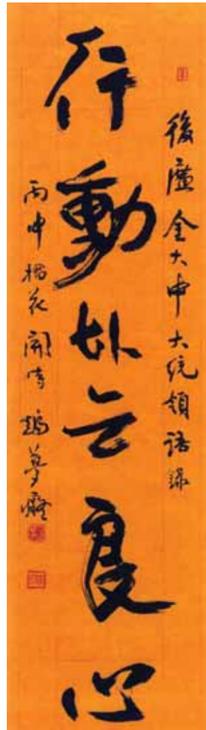
김대중의 '민주·평화 정신' 노래하다



12일 문화전당 서거 8주기 추모음악회
 '목포의 눈물' '야상곡 20번' 등 들려줘
 16일까지 '갤러리 봉선' 추모어록 전시회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서 추도식



이상록 음악감독



이동훈 작 '행동하는 양심'

“당신은 민주주의입니다/ 어둠의 날들/ 물아치는 눈보라 견디고 피아나는 의지입니다/ 햇볕이나 죽음의 마루턱/ 햇볕이나 그 마루턱 넘어/ 다시 일어서는 목숨의 승리입니다/ 아 당신은 우리들의 자유입니다 우리입니다”
 고은 시인은 그를 민주주의이고, 민족 통일이고, 세계라고 노래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1924~2009)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8년이 지났다. 그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어록 전시회와 추모음악회, 추도식이 열린다.
 김대중대통령 광주전남추모사업회가 주최하고 (사)행동하는 양심 광주전남협의회가 주관하는 서거 8주기 추모음악회

가 12일 오후 6시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 2에서 열린다.
 “영원한 평화의 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대거 출연해 무대를 꾸민다. 음악회 총연출은 최명진 목사가, 음악감독은 피아니스트 이상록씨가 맡았다.
 1부 ‘후광 김대중’에서는 ‘목포의 눈물’을 소프라노 유형민, 반도네온 김국주, 기타 광우영이 함께 들려주며 쇼팽의 유작인 ‘야상곡 20번’을 피아니스트 이상록이 연주한다. 또 무용의 장윤나·김재승, 대금 이아람, 피아노가 어우러진 ‘하얀 밤을 함께 걷다’도 만날 수 있다.
 2부 ‘행동하는 양심’은 신경림의 시에

안혜경이 곡을 부친 ‘햇살’,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를 류의남의 노래와 박성언의 기타로 만날 수 있다. 또 여성 성악그룹 ‘더 싱어즈’(단장 이한나)는 ‘고향의 봄’과 ‘진노의 날’을 들려주며 유형민 노래와 대금, 피아노가 어우러진 ‘엄마야 누나야’도 눈길을 끈다.
 3부 주제는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다. 팝송 ‘마이웨이’를 바이올린(박승원), 피아노(이상록)이 어우러진 음악으로 들려주며 칸타빌레어린 합창단의 목소리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과 정윤성 곡 ‘평화의 비둘기’를 만난다. 마지막 곡으로 출연전 전체가 고은 시인의 시에 신형원이 곡을 부친 ‘당신은 우리입니다’

를 함께 부른다.
 김 전 대통령이 추모 어록 전시회는 오는 16일까지 갤러리 봉선(광주시 남구 봉선1로 24)에서 열린다.
 학정 이동훈 선생은 김 전 대통령의 대표 어록인 ‘행동하는 양심’을 전시하며 강형채·곽정우·김병기·김영기·김정화·리홍채·전종주·전명옥·정광주·홍영순씨 등 유명 서예가들이 작품을 내놓았다.
 추도식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7층 다목적 강당에서 열리며 추도사와 김대중 대통령 육성 영상 상영, 추모의 모래, 헌화와 분양 순으로 이어진다. 문의 062-652-997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역사 붓으로 읽다’... 서예가 서재경 개인전

8~13일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서예가 서재경은 전통 서예의 현대적 해석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다. 한지에 먹으로 구현하던 전통서예의 영역을 벗어나 동판 부식으로 표현한 서예 기법 등 끊임없이 새로운 기법을 고민하며 작업했다. 서 작가는 특히 세상에서 벌어져 다양한 사건들을 자신만의 감성과 서예적 해석으로 풀어내 왔다.
 8일부터 13일까지 광주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열리는 8번째 개인전 ‘역사 붓으로 읽다’전은 작가가 바라보는 세상 이야기이자,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을 소재로 한 ‘못다 핀 꽃’을 비롯해 2001년 9·11 미 무역센터 테러, 2010년의天安함 사건, FTA 타결 등 다양한 사건들이 등장한다. 백성은 물이요, 임금은 배라는 의미의 ‘군주민수(君舟民水)’라는 작품은 지난해 치열했던 촛불 집회의 시인 파워를 보여준다.
 ‘군세어라 금순아’, ‘상록수’ 등 다양한 노래도 그의 작품 소재가 됐다. 모두 단순한 노래의 의미를 넘어 역사 시대상을 담고 있다. ‘군세어라 금순아’는 한국전쟁 휴전 무렵 분단으로 헤어져진 피난민들의 정서를 담은 노래이고, ‘상록수’ 역시 민주주의의 고비 고비마다 불러졌던 노래다.
 ‘말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한자 말마(馬)자를 활용해 작업한 ‘강남스타일’, ‘맨서의 순정’ 등은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눈에 띄는 작품이다.
 서씨는 호남대 미술학과(서예 전공)를 졸업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무등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했다. 현재 (사)광주서예협회 이사장, (사)남도문화예술발전소 대표, 대한민국 캘리그라피대전 운영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전시 오프닝 행사는 8일 오후 7시 열리며 작가의 작업실인 함평군 학교면 포우현에서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전시가 이어진다. 문의 062-675-337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통문화관 문화예술강좌 ‘청사초롱’ 수강생 모집

25일까지 접수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하 전통문화관)은 2017년 전통문화예술강좌 ‘청사초롱’ 하반기 일반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상반기에 개설한 판소리, 가야금병창 등 총12개 강좌 중 8개 강좌는 하반기 중급 과정으로 운영된다. 신규 개설한 강좌는 전통음식, 전통채색화, 판소리 고법, 방아손 판소리 등 4개 강좌다. 강의는 9월 4일부터 12월까지 매주 1회씩 총 15주에 걸쳐 진행하며, 수강 신청은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전통문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접수가능하다. 수강료 10만원.
 하반기 12개강좌 강사진은 ▲전통음식-이애설(무형문화재 제17호 남도리례 음식장) ▲판소리-이임례(무형문화재 제14호 판소리 강산제), 이순자(무형문화재 제1호 남도판소리), 정춘실(무형문화재 제15호 판소리 동편제), 방아손(무형문화재 제16호 판소리 춘향가) ▲전통채색화-이성임(회화작가) ▲판소리고법-김남중(무형문화재 제11호 판소리고법), 방아손 판소리 등 4개 강좌다. 강의는 9월 4일부터 12월까지 매주 1회씩 총 15주에 걸쳐 진행하며, 수강 신청은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전통문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접수가능하다. 수강료 10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남도전통문화와 현대미술의 만남

‘G&J 광주·전남 갤러리’ 11~22일 ‘타임 슬립’전

전남과 광주가 문화예술분야 상생협력을 위해 서울 인사동에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G&J 광주·전남 갤러리’가 기획전 ‘타임 슬립 time slip’전을 준비했다.
 이번 전시회는 전남문화관광재단이 세 번째 선보이는 기획전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자연스럽게 오가는 시간여행을 의미하는 ‘타임 슬립 time slip’이란 주제로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
 ‘타임슬립 time slip’전은 시대에 따라 전통의 의미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작가들

의 고유한 방식으로 창작된 작품들을 통해 현대미술의 실험성과 독창성을 살펴보는 전시다. 전시에는 전남도 국가무형문화재 제115호 정관채 염색장과 종견작가 김현덕, 미디어아티스트 이아람, 청년작가 김단비와 하루.K 등 5명이 참여해 전통예술, 미디어, 회화 등 총 18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정관채 염색장의 염색작품, 김현덕 작가의 전통채색을 가미한 대형 회화작품 ‘불과 바람의 흔적을 그리다’ 시리즈 4점, 이아람 작가의 ‘2017 박연폭포’ 등 미디어



김현덕 작 '불과 바람의 흔적을 그리다'

작품 3점, 청년작가 김단비의 ‘별유천지’ 시리즈 5점, 청년작가 하루.K의 ‘맛있는 산수’ 등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문의 02-2223-2545~6. /박성천기자 skypark@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호텔 수영장

신양파크호텔 여름 패키지

스탠다드룸 1박 + 조식 2인 + 사우나, 수영장 2인

₩110,000원 (세금포함)

객실예약 228-8000
 광주일보 제휴 패키지 예약주시는 분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신양파크호텔과 함께하실 임대업장 사업주를 모십니다!

- ▶ 임대업장 : B1 노래방 / F2 한식당
- ▶ 상담 및 문의 : 062) 221-4172 총무과
- *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방

한식당